



남원시는 2016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총사업비 131억 원을 투자한다.

남원 농업생산시설 131억 투입

시, 농로 확포장·수리시설 개보수 등 영농기 전 사업 완료 계획

남원시는 2016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총사업비 131억원을 투자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영농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해 급변 영농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지표수개발사업 1지구와 대구형경지 정리사업 1지구, 논·밭작물 재배사업 1지구, 농로확포장사업 30km,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km등에 70억 원이 투자되며, 기상이

변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4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70개소, 관정·양수장 보수 40개소,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30km 등에도 61억 원을 투입한다.

남원시는 전 사업장에 대해 2월말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3월초에 사업을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른 사업과 달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해야 하므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간 농로와 용·배수로 등 시설물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해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및 측량, 공사 추진 시 인근 농가, 마을대표(이장)등을 입회하여 사업추진 함으로써 사업 신뢰성을 제고하고 농민의 불편사항이 적기에 해소하여 농산물 생산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MICE산업 본격 육성한다

'농촌특화자원 활용 사업' 선정... 사업비 31억 확보

순창군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이 주관했으며 입실군, 남원시, 전라북도청조경계획센터가 참여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이란 대규모 회의나 전시행사 개최 등 기존 의미에 농촌특화자원을 활용해 소규모 회의나 세미나, 농촌 체험 등 관광을 융합시킨 사업이다.

농촌의 특화자원인 농산물과 청정자연을 활용해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건강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순창의 월랜드 남원지리산허브밸리, 입실치즈테마파크, 전북청조경계획센터 등의 기본 인프라가 30분 이내 생활권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군은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을 통해 기업연수, 세미나,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시민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창업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해 농생명 관련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기업연계 컨설팅을 진행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CE산업을 연계한 지역농산물 유통 판매 지역홍보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3개 시군의 농특산물 판매 시스템 및 교차 판매망을 구축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농촌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기업이나 정부의 세미나는 물론 도시민들의 소규모 회의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이다”며 “3개 시군이 연계해 관광과 농산물 판매 유통과도 연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업은 전북도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컨설팅 실시 후 오는 3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한편 총사업비 31억원의 컨설팅 등 진행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순창=주인규 기자

'춘향인재장학생' 선발 공고

3월10일까지 신청 접수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에서는 2016년 '춘향인재장학생' 선발계획을 1일 공고하고, 3월10일까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춘향인재장학생 선발은 지난 1995년 춘향장학재단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5년까지 1,4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6억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춘향인재장학생은 우수·희망장학생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총 150여명을 선발하며 2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신청은 성적증명서, 대학교 합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 교육체육과(춘향장학재단)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 관련 사항은 시 홈페이지, 춘향장학재단(☎620-5603~5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설 생활쓰레기 만전

종합상황실·기동처리반 운영·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임실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생활쓰레기 종합처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방침을 확고하고, 연휴기간 동안 군과 읍·면사무소에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종합상황실'과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각종 청소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3일 읍·면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공무원, 주민, 사회단체 등 1천여명이 참여하여 국토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날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의용소방대, 임실청년회이스 등 5개 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임실읍 시

가치 및 주요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경관을 해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 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운안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대원 40여명도 귀성객과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국사봉과 옥정호 순환도로 일원에서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펼쳐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토대청결 운동 덕분에 임실군의 위상과 이미지가 상승했다”며, “필요한 만큼 음식물을 준비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명절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설연휴 비상진료대책 마련

6일~10일 당직의료기관·휴일지킴이약국 지정

고창군이 설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와 군민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차별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고창군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063-560-8773)이 운영된다.

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당직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고창병원) 1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6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48개소 등 총 54개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 34개소와 함께 일차별로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휴일지킴이약국은 지역 내 약국 24개소를 연휴기간 중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운영한다.

한편,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은 응급의료정보센터(전화 국번 없이 129 또는 119)이용 시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배너창 및 공지사항과 고창군 비상진료대책상황실(보건소 063-560-8773)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특리소

임실농기 'e-비즈니스 활성화' 수강생 모집... 12일까지 60명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오는 12일까지 임실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60명을 모집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에 거주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모바일·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블로그 운영 ▲오픈마켓 활용법 등의 강의를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운영한다.

모집 기준은 농업소득 창출 의지가 강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misil.go.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e-mail(ab1408@korea.kr)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농어촌공, 설맞이 봉사활동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집'(주천면 소재)과 남원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재래시장상품권을 전달하고 설맞이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남원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42명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월급에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모은 기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남원지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헌혈,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회복지단체 후원, 농촌 일손 돕기 등 연간 20회 이상의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쳐, 남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박우정 고창군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 및 AI 발생 방지와 차단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대신, 무장 방역소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고창군은 현재 구제역 상황 종료시까지 특별방역대책부서를 편성 근무하고 있으며 방역소소 6개소(가점소독 3, 일일소독 2, 통제소 1)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박 군수는 3일 관계 공무원과 초소 근무자에게 “지난 13일 무장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 신고는 없으나 설 명절을 대비해 구제역·AI 차단방역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설 명절기간 귀성객 홍보와 협조를 위해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방문자제 현수막을 설치(24개소)하고 마을 안 내방송, 다중이용시설(터미널, 군 청사 등)에 발판소독소를 설치해 전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3일과 오는 17일 축산농장 및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2회 실시해 완벽한 차단방역에 민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도로명 주소 적극 홍보

임실군이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전통시장을 찾은 주부 및 상인 등을 대상으로 임실·강진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지에서 전단지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적극 안내했다.

특히, 군은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택배회사 및 우편 다량 사용처를 찾아가 안내하는 방문 안내서비스도 적극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활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원리 및 활용방법과 편리성 위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J&J

GRAPHIC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